

업무상 근골격계질환 산업재해판정자에 대한 현황 분석

The Trends and Status of Work-related Musculoskeletal Diseases under Korean Worker's Compensation System

김경하, 황라일¹⁾, 석민현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연구센터, 수원여자대학교 간호과, 차의과학대학교 간호학과)

목적: 본 연구는 업무상 근골격계질환자의 산재 추이 및 신체 부위별 근골격계질환 승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 후 근골격계질환 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방법: 본 연구는 서술적 조사연구로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 적용 및 요양급여 데이터 베이스를 활용하였으며 연도별 추세 변화의 유의성 검정은 경향분석(trend test)로 근골격계질환 승인의 차이는 카이제곱, 산재승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으로 확인하였다.

결과: 본 연구결과 근골격계질환 산재요양 신청과 승인건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남성이 많고 30~40대가 대다수이며 50대의 고령근로자가 증가추세를 보이며, 부위로는 척추가 가장 많았고 상지가 하지보다 높게 나타났다. 근골격계질환 승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상지는 연령, 사업장 규모, 업종, 근무기간이 척추는 사업장 규모와 1일 중량물 취급량으로 확인되었다.

결론: 본 연구를 근거로 보건관리자는 근골격계질환 발생 고위험집단을 대상으로 특성별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을 인지하고 근로자의 다양한 근무형태와 작업위험요인을 고려하여 신체 부위별 근골격계질환 예방 활동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1) 교신저자: 황라일, hwangri@swc.ac.kr